반환점 돈 도의회… "질병대응센터 설치를"

어제 '제383회 정례회' 폐회 제11대 전반기 활동 마무리 '농민수당 조례' 등도 처리 교육의원제 의견 합일 안돼

김태석 의장 "시설공단 보류 평가는 도민·역사의 몫으로"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5일 제383회 제1차 정례회의 2차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전반기 의정활동이 마무리됐다.

제주도의회는 25일 전반기 마지막 회기인 제383회 제1차 정례회의 2차 본회의를 열고 2019회계연도 결산안과 조례안, 동의안, 결의안, 청원 등 총 7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도 설치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며, 2022년부터 지급되는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전국 최초 국고보조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제주도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도 통과됐다.

상임위에서 수정가결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도 의결되면서 도내 면세점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확대,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등 최종 확정된 57건의 제도개선 과제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 훼손 논란이 불거진 '제주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날 대표발의한 강성균 의원의 요청에 따라 상정 보류됐다.

박원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도 결국 불발되면서 교육의원 피선거권 자격조항 위헌확인사건에 대한 다수·소수 의견이 담긴 의회 단일안이 아닌 개별 의견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출될 전망이다.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후반기로 넘어가게 됐다.

관련해 김태석 의장은 이날 폐회사에서 "제주시설공단 설립 운영 조례의 상정 여부를 고민하면서 떠올린 역사의 교훈은 9대 의회 때 가결한 '제주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었다"면서 "당시 자연녹지지역 내 주택 층수 제한 완화, 상업시설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의회가 수용해 가결함으로써 제주의 난개발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듯 한 번의 정책 결정은 우리사회에 불가역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시설공단 조례 또한 직면한 재정위기 상황을 고려해 설립 강행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지만 그 결정에 대한 평가는 도민들과 역사의 몫에 남겨둘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은지기자

다음달 네 차례 제2공항 토론회 찬반 갈등 빚는 쟁점 해소될까

제주도·의회 7월 2일부터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논란을 빚은 쟁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가 내달부터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공동 주최하는 공개 토론회를 내달 2일부터 24일까지 매주 1회씩 총 4차례에 걸쳐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 등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개 연속토론회는 제주 제2공항 추진 관련 찬·반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제2공항 관련한 쟁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고, 제주 지역사회에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최된다.

토론자는 국토교통부와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에서 각 2명씩 참여하고, 찬성과 반대 이해관계자와 공모를 통해 신청받은 도민들이 매회 50명씩 토론회에 참가한다.

토론회의 의제는 지난 3차례 비공개 연속토론회에서 도출된 주요 쟁점별 토론으로 1차 공항 인프라 필요성, 2차 기존 공항 활용 가능성, 3차 입지 선정의 타당성이다. 4차는 1~3차 토론회에서 나온 의제를 총괄적으로 다루는 종합 토론회로 진행된다.

한편 공개 연속토론회 도민참여단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제주도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이후 한국갈등학회에서 참가 신청 도민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최종 선정해 개별 통보한다. 이태윤기자

"지속가능 제주를"… 마주앉은 도·JDC

어제 협의회서 안건 논의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한 상호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JDC 정례협의회가 25일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례협의회에서는 환경가치 증진사업 협업 등 제주특별자치도 8건, JDC 3건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발굴 안건의 주요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와 JDC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 협업 추진,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하논 분화구 복원사업 및 오름 공원화 사업이며, JDC 발굴 안건 주요내용은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속 추진 및 핵심프로젝트 연결도로 신설 등이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정례협의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와 JDC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도민 사회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쓰임 벗어난 예산 집행, 바로잡아야"

도의회 예결특위 결산심사 도·교육청에 42건 시정 요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는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에 총 42건을 시정 요구했다.

예결특위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본청과 양 행정시를 포함한 제주도 결산안을 심사했으며, 24일 교육청 결산안 등 모든 심사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결산 승인안과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 필요 사항들을 정리한 시정요구서를 의결했다.

예결특위는 제주본청 22건, 행정시 공통 1건, 제주시 4건, 서귀포시 5건, 교육청 10건 등 총 42건의 시정요구서(시정 22건, 주의 20건)를 발부했다.

시정요구서에는 미수납액 징수방안 강구, 출자·출연기관 결산서 등 미제출, 예비비 집행 철저 및 이월률 최소화 방안 마련, 민간보조사업 정산 관리 미흡, 사업비 미정산에 따른 조속한 정산 등이 거론됐다.

또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 방식 변경,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단속 강화, 권역별 재활병원 운영비 지원, 국가직접지원사업 응모 시 의회보고 미이행, 예산의 목적 외 사용문제 등에 대한 주의 내용도 담겼다.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 매년 증가하는 이월액 문제, 예산 전용의 최소화, 합리적 세출예산 운용 방안 마련 등이 지적됐다.

한편 제주도에서 제출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6조 2523억원 규모이며, 세입결산액은 6조2890억원, 세출결산액은 5조6304억원이다. 교육청 예산현액은 1조 5679억원 규모로 세입결산액은 1조 5693억원, 세출결산액은 1조 3452억원이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코로나 생존전략 정책토론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대표 박원철 의원)와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의원)가 공동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강성민(이도2동 을)·이승아(오라동)의원이 주관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주의 생존전략' 정책토론회가 오는 29일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토론에 앞서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의 '코로나 이후 뉴노멀 시대 도래와 한국사회의 전환'의 비대면 기조강연과 고봉현 제주연구원 상생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제주지역 산업·경제를 중심으로)'에 대해 주제 발표가 예정돼 있다. 오은지기자

도·JTP 데이터분석 대회

빅데이터로 소비를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이터분석 경진대회가 온라인 상에서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JTP)는 데이터분석 경진대회인 '2020 Jeju BigData Competition'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대회 개최 목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예측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분석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환경 속에서 신용카드 사용량 예측모델을 만들어 활용하면 위축된 지역경제와 중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는데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 대회에는 학생, 연구자 등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대회 운영과 심사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평가 전문 업체인 데이콘에서 진행하고 전문적인 알고리즘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우승팀을 가린다. 예측 결과물 제출기한은 오는 7월 31일이다. 상위 3개팀에게는 대상 300만원,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 등 6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콘 홈페이지(https://dacon.i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금탁기자

제주시공고 제2020-2000호

도시관리계획안 입안 및 열람공고

도시관리계획안 입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6. 26.

제주시장

1 도시관리계획안

○ 도시계획시설(학교:영평초등학교) 결정(변경)안

가. 도시계획시설(학교:영평초등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기정	면적(㎡) 변경	면적(㎡)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변경	1-47	영평 초등학교	학교	영평동 1826 일원	12,660	증)2,585	15,245	'86.6.27.	

나. 도시계획시설(학교:영평초등학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47	영평초등학교	·시설면적 증가 – 당초 : 12,660㎡ – 변경 : 15,245㎡ 증)2,585㎡	·구적오차에 따른 면적정정 및 다목적강당 신축을 위한 면적증가

2 열람기간

– 2020. 6. 26. ~ 2020. 7. 10. (14일간)

3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제주시 도시계획과(☎728-3514) ※ E-mail: damrim@korea.kr

4 관계도서

– 게재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해외·육지 전문여행사

여행의 멋과 맛, 재미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가진행

6월~10월 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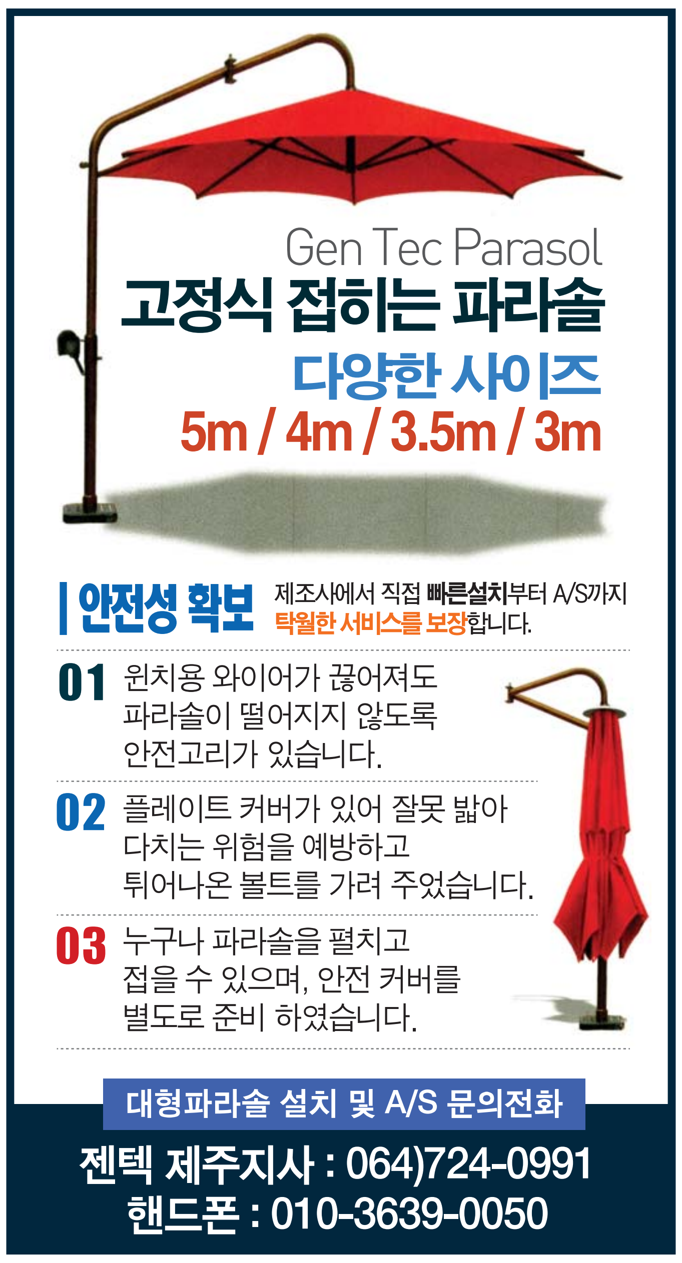
대형우등버스 1일 40만원 부터~

중형우등버스 1일 20만원 부터~

여행품질과 가격비교 자신있습니다.

육지 전세버스 보유업체

미도항공·미도투어

위치 : 제주시 용담이동(오라오거리) ☎713-1951

상담 유옥종 010-5015-1951